

데스크 시각

인문학의 바다에 빠진 중년들



송기봉 문화2부장

#연말에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J씨는 틈틈이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인문학 공동체에서 독일 철학자 니체의 철학책을 읽고 토론한다. 21권 짜리 전집을 구입해 ‘자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즐거운 학문’, ‘아침별’ 등 여러 권을 독파했다.

책 한 권을 공부하려면 두세 달이 소요된다. 또 일반 멀티플렉스(복합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예술영화를 광주극장에서 즐겨 보고 지인들에게도 꼭 볼 것을 권유한다. 좋은 전시회와 뮤지컬, 공연이 있으면 서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다. 철학 등 인문학과 영화는 자신을 위해서 밀어주는 든든한 바탕이자 삶의 ‘비타

민’이다. #매주 토요일 광주 시내 한 대학 강의실에 중년의 남녀가 모여든다. 대학원생들의 ‘노자(老子) 수업’을 청강하기 위해서다. 20~30대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청강생 20여 명의 나이는 사회생활에 한창인 40대부터 퇴직한 60대까지 폭넓다. 직업도 교사·공무원·직장인·주부 등 다양하다.

이들은 교수의 문구 해석을 한마디라도 빠뜨릴새라 귀를 기울이며 메모한다. “물들이기 전 본바탕 그대로의 명주 천과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 같은 소박함을 잊지 않고, 사사로움을 줄이며 욕심을 적게 하라.(見素抱樸 少私寡欲)” 연료 있는 청강생들의 공부하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 1000여 년 전 고전을 들춰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기 성장의 ‘마음공부’

중년들이 인문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것도,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생계를 위

한 것도 아니다. 10대와 20대 시절의 ‘공부’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압기였고, 30대의 ‘공부’는 스펙과 자기계발을 위한 것들 뿐이었다. 반면 ‘불혹(不惑)이라 일컫는 마흔 살을 지나 중년으로 접어들며 시작한 새로운 ‘공부’는 바로 ‘마음공부’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흔들림 없는 인생의 ‘북극성’, 말하자면 지표(指標)를 찾기 위함이다.

20~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중년은 경기 불황과 성과주의,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다.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그 무엇’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찾은 숨구멍이 바로 ‘인문학’이다. 가깝게는 100여 년에서 멀리 1000여 년 전에 쓰인 철학서와 역사, 문학작품 등 ‘고전’들의 글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다.

요즘 지천명(知天命)을 훌쩍 넘어선 고교 동창들을 만나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건강 챙기기’다. 무엇보다 주말에 뒷밭에서 흙 내음을 맡으며 작물을 키우거나, 개인적으로 고전을 읽고 인문학 강좌에 등록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쩍 눈에 띄는 것이다. 시를 쓰는 한 대학 친구는 ‘일리아스’, ‘오디세이’ 등 고전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중년 또는 노년의 인문학 ‘공부’는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J씨는 이렇게 말한다. “인문학은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묻는 공부이다. 젊을 때 고전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다시 읽으니 너무 좋다. 옛날에 쓰인 책이어도 요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 100년 전 고전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 혼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젊은이들을 위한 단발성기 아닌 장기적인 무료 인문학 강좌 개설도 필요하다.” 중년에 갈망정평하는 나를 위한 진정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다.

/song@kwangju.co.kr

社說

더민주 잃어버린 호남 민심 다시 얻으려면

4·13 총선에서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엇그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 후 첫 번째로 광주를 방문했던 것도 뒷밭 패배의 아픔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 준다. 김 대표는 “호남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비상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박감을 표현했다. 전 국적으로 원내1당이라는 성과를 거둬도 호남을 잃어가는 정국 주도과 내년 대선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배어 있다.

그러나 더민주의 바람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먼저 선거 끝나기 무섭게 새 나오는 당 내홍 조짐이 문제다. 당권을 놓고 불거진 김 대표 합류추대론에 ‘친면 바른’ 생각을 갖고, 사회 혼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젊은이들을 위한 단발성기 아닌 장기적인 무료 인문학 강좌 개설도 필요하다.” 중년에 갈망정평하는 나를 위한 진정한 ‘공부’는 바로 지금부터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지난해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2·8 전대 과정에서 반복과, 분당사태를 몰고 온 뿌리 깊은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이다. 정당 내부 주도권 경쟁이야 불가피하지만 특정 그룹 중심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한다면 의석수만 많아진 채 ‘도로 새장런’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호남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광주 유치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같은 굵직한 현안 추진이 시급하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 했지만 실천이 없다면 실망감만 더 커질 것이다.

김 대표 자신도 “몇 번의 호남 방문과 사과로 호남 민심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크게 진심이라면 수레바퀴 소리를 울려야 할 게 아니라 나사 악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방도 대출심사 강화 ‘강통전세’ 우려된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가 다음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값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이 골자인데 지방의 경우 최근 2~3년간 공급 증가로 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세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조선·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장기 불황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다.

올 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3단지 등 총 1만473가구로 지난해 대비 4721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입주 물량 증가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근 광주는 7년 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꺾인 것을 비롯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역전세난이 문제다. 현재 광주

지역 전세가을(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최고치인 80%대 육박했고, 전남마저 높은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매매 시세가 전세가 수준이나 그 이하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강통전세’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2조 원이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이 급증해 1200조 원대를 돌파했다. 과도한 빚은 당장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금융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호황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3단지 등 총 1만473가구로 지난해 대비 4721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입주 물량 증가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근 광주는 7년 만에 아파트 매매가가 꺾인 것을 비롯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역전세난이 문제다. 현재 광주

은편칼럼

베이비 부머의 퇴장



심명선 대한문화작가회 광주·전남 회장

대지를 환하게 수 놓았던 봄꽃들이 우주 속 내리는 봄비에 맥없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이른바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이 어깨를 늘어 뜨리고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베이비 붐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급등하여 생긴 인구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이 용어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7700만 여명의 출생 코호트를 지칭한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에서 기원되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발생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

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으로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어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약 9년에 걸쳐 출생한 세대를 칭하며 이들은 714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유년기에는 빈곤에 허덕였고, 1960년대에는 대가족제도라는 사회와의 괴리를 경험한 세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유신시대를 거쳤으며, 1980년대에는 일명 넥타이 부대로서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한국현대사의 격동기를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왔다. 이처럼 어려운 세대에서 살아오면서도 이 땅의 경제적 풍요를 준비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를 맞아 또 다시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녀가 자라는 동안 부모가 뒷바라지 하고, 그 자녀는 부모가 늙어 되면 봉양하는 순환구조였다. 그러나 서구화, 산업화 물결과 함께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그 구조는 무너지고 있다. 그 속에서 베이비부머들은 인구가 많은 거대집단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로 전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끼어 있거나 있는 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과 정열과 땀방울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나라가 있었겠는가? 그런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제성장의 선봉에서 서서 산업현장의 전사로서 때로는 넥타이를 풀어 재끼고 민주화를 외쳤으나 정년이라는 장벽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말없이 물러났거나 추동력을 잃고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인 채 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베이비부머의 퇴장은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부모봉양과 자녀양육의 임무를 떠맡은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맞는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우리나라 법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집중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베이비부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고자 최근 전남도는 전남 시니어세일터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중장년층(60세~64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알선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양교육과 전문교육도 실시한다고 한다. 만사지탄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물러나는 여생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일환으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대응책 마련에 보다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될 때 베이비부머들의 노년의 삶이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광주에 ‘아시아 스포츠 실리콘 벨리’를 만들자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은행이 당초 목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역대 최저점 감소세를 이어가고, 1분기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중에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로 대변되는 10년 주기설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불안감도 높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하이테크산업은 고도의 연구개발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스탠퍼드대학의 연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된 실리콘벨리가 그 전형이다. 연구기반이 취약한 도시들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2025년까지 중국의 스포츠산업 규모를 5조 위안(877조원 가량) 규모로 키운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스포츠 산업규모를 5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 융·복합 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제1회 아시아 올림픽 개최 이후 아시아의 스포츠 허브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쿠알라룸푸르에 다양한 아시아 스포츠경기연맹을 유지했다.

필자는 연구개발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계적인 ‘스포츠의 실리콘 벨리’인 스위스 로잔을 따라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아시아의 스포츠 실리콘 벨리는 충분히 꿈꿀 수 있다고 본다.

인구 13만에 불과한 스위스의 작은 도시 로잔은 IOC본부에 비롯한 세계스포츠기구들이 대거 동지를 틀면서 세계 스포츠 정보와 산업을 움직이는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스포츠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져 고공정보

가 흐르고, 스포츠와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모인다. 스포츠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스포츠기구는 약 200여개에 달한다. 이들 국제연맹은 세계 곳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IOC를 비롯해 수영, 체조, 양궁, 배구, 승마, 펜싱 등 20여개 연맹과 스포츠중재재판소 등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전체 국제스포츠연맹 중 약 50%는 본부가 불안정하며, 아시아연맹의 경우도 본부 소재지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광주가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한 국제스포츠연맹의 고향이 되면 어떨까. 먼저 소재가 불안정한 국제연맹들을 광주로 불러들여 동지를 틀게 하고,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의 아시아 연맹들을 광주로 모이게 하자. 일명 제2의 스위스 로잔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겠다.

시선을 바꾸면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미 레드오션이다. 기업을 광주로 유치하듯이 국제스포츠기구를 광주에 유치하자. 이들을 위한 세제혜택, 사무실 지원, 하우징 서비스 등은 스위스 로잔을 벤치마케팅하고 전담 유치팀을 구성하여 국제스포츠연맹들이 광주로 말

려오게 해보자. 지금이 광주가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기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일약 22위의 국제스포츠도시로 부상했다. 세계적인 스포츠도시 인덱스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의 도시는 북경, 동경, 도하 정도다. 국제스포츠기구들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약 1조원으로 보고 있다. 국제스포츠기구의 특성상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본부가 있는 도시에서 지출한다. 규정보다 국제회의, 컨벤션,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들이 본부 소재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는 적어도 100개 이상의 회원국을 갖고 있으나 1차례 회의의 만 해도 300~400명이 모여든다. 뉴욕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제스포츠 기구가 1스위스 프랑을 사용할 때마다 지역 경제에 1.55프랑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스포츠연맹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산업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이 식당에서 1식3찬과 된장국이 나오는 백반을 1000원에 팔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부터다. 김 할머니가 대장암을 선고받았던 2012년 5월 위기를

無等鼓

하루에 공깃밥 두 그릇도 먹지 않을 만큼 쌀 소비량이 줄었지만 50대 이상에선 아직도 밥이 상투적인 인사말로 통용되고 있다. 어른을 만났을 때 입버릇처럼 “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못 먹던 시절, 밥 한 끼는 생명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자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였다. 지난해 3월 대장암으로 세상을 등진 김선자 할머니가 광주 대

맛있지만 주위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아직도 대인시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김 할머니의 ‘천 원 밥상’은 대학가에도 온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아침밥을 1000원에 파는 ‘천 원 건강 밥상’을 내놓은 이후 서울대와 부산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천 원 밥상’

한니는 어려웠던 시절 남들에 게서 받은 도움을 여생을 통해 베풀기 위해 한 끼에 1000원 하는 일명 ‘천 원 밥상’을 내놓았다. 그는 생전에 “누구 한테 쌀 없다면 말을 못해서 굶어 보기도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해 뜨는 식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식당에서 1식3찬과 된장국이 나오는 백반을 1000원에 팔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부터다. 김 할머니가 대장암을 선고받았던 2012년 5월 위기를

젊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구내식당에 서 아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 밥상’이란 이름처럼 영양도 만점이고 한식과 양

식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 인기가 많다. 1년 동안 이용한 학생만 해도 5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조사한 것을 보면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 가격은 6566원이다.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은 편의점의 삼각김밥 정도다. 주위에서 굶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천 원 밥상’의 따뜻한 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졸업·취업·결혼 포기 등 ‘3포 세대’를 넘어 희망의 끈을 모두 놓아 버리는 ‘N포 세대’의 청춘들도 그들 중 하나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